칼빈이 가르친 성령론

1. 워필드 (B.B, Warfield, 프린스톤신학교 교수)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로 이해
   ⇒ 칼빈의 신학구조는 성령론 중심 ⇨ 구원론적 / 보편적(우주론적) / 성령의 내적 증거

2. 삼위일체에서의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직 경건의 체험에서 확증됨
   ⑴ 삼위일체 ⇒ 성부, 성자, 성령은 각각 구별(distinction)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본질이다. (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)
   ⑵ 삼위일체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. (지식과 사색으로 불가)
   ⇒ 성령론은 구체적인 경건의 체험과 연결되어 있음 (중생, 칭의, 성화)
   "나는 선행(성화)없는 신앙(칭의)을 꿈꿔본 적이 없다"

3. 성령의 보편적(우주적) 사역
   롬8: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
   (주석) 성령의 3중적 활동
   ⑴ 성령과 우주 (⇢보편적 보존, 성령의 통치, 성령의 계속적인 창조 질서 유지)
   ⑵ 성령과 인간 (① 동물과 공유하는 보편적 생명 ② 인간의 생명의 존엄 ③ 초자연적 생명)
   ⇢ 타락이후에도 약간의 하나님의 형상(image of God)이 남아 있음
   자연적 은사와 초자연적 은사를 구별 (일반은총의 영역도 성령의 역사이다)
   cf. 불신자도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본성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, 성령께서 악한 속성을 억제

4. 성령의 특별사역 (⇢ 오직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)
   ⑶ 성령과 교회(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) ⇢ 중생, 칭의, 성화, 영화(영광스럽게 됨)
   성령의 중생(regeneration), 칭의(justification), 성화(sanctification), 영화(glorification) 사역
   ⇒ 성령의 역사 없이는 <u>중생(regeneration)</u>이 없고, 중생의 경험을 통해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된다.
  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신자에게 의로움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<u>칭의(justification)</u> 역시도 성령의 역사.
   ⇢ "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끈(band)이다"
   구원받은 성도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<u>성화(sanctification)</u>도 성령의 역사이다.
  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상태<u>(glorification)</u>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다.

5. 성령의 내적 증거
   ⑴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(⇢ 바른 신지식)을 갖게 한다.
   cf. 로마 교회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 성경이 결정되지만 개신교회는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인정한다.
   ⑵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신자에게 주신다.
   "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(union with Christ)"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고,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 생겨난다.
   ⑶ 성령은 내적인 교사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심는 양자의 영(spirit of adoption)이시며,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.

6. 성령과 교회 (⇢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외적 수단)
   ⑴ 교회를 위하여 목사(pastor)와 교사(doctor, 신학교 교수)를 세우심 ⇢ 말씀선포와 성례집행
   ⑵ 목사의 말씀 선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결실을 맺는다.
   ⑶ 성령은 말씀을 의지하여 성례에 임한 성도들에게 성례의 효력을 제공한다.
   ⑷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 다양한 은사는 오직 교회를 온전케하고, 성도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.